三界는 모두 '불난 집'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⑦ 장자의 방편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 먼저 여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 비유, 언사로써 방편을 만들어 법을 설하시는 것은 모두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위해서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한 여러 설법이 모두 보살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이제 또 비유로써 다시 이 뜻 밝히리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 듣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리불아, 어느 나라 안에 유명한 장자 있었다. 그의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으나 재산이 한량없어 전지, 저택, 하인들이 많았다. 집이 넓고 컸는데, 오직 문은 하나뿐이었다. 사는 사람이 많아 일백, 이백 내지는 오백 명이 그 속에 살았느니라. 건물이 썩어 낡았고, 담장과 벽이 무너지며, 기둥뿌리가 상하고, 대들보, 기둥이 기울어졌는데, 갑자기 불이 나 이 집이 타고 있을 때, 장자의 열 스물 내지 서른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집 안에 있었느니라.

장자가 큰불이 사면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붙은 집 문을 편히 나왔으나, 아이들은 불꽃 싸인 집안에 아직 남아 놀이에 집착하여 불난 줄을 몰라 놀라지도 두려워도 하지 않아, 불이 와 몸에 닿을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철이 없어 몰라서 나오려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아, 장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집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더욱 협소하니, 아이들 어려 철없어서 노는 데에 정신 팔려, 행여 잘못되어 저 불에 타버릴까 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러주되, 이 집이 불에 타고 있으니, 늦기 전 빨리 나와 불에 타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오라.' 하고 외쳤느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가엾이 여겨 좋은 말로 간곡히 타일렀건만, 아이들은 놀이에 넋을 잃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도 하지도 아니하여 끝내 나오려 하지 않아,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만 동서로 달려 놀며, 아버지를 바라볼 따름이었느니라.

그때 장자가 다시 생각하였다. '이 집이미 큰불에 타고 있으니 나와 아들들이 지금 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타 죽으리라. 이제 방편 만들어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아이들의 진작부터 마음에 각기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갖가지 기이한 노리개를 원하리라 여겨, 이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리개는 여기 있다. 좀체 얻기 어려운 것들이니, 만약 지금 안 가지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여기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가 문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만하다. 너희들은 불붙은 집에서 어서 나오너라.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리라.'

그때 아이들은 아비가 말하는 노리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어, 각기 씩씩하게 서로 밀치고 떠밀면서, 불난 집에서 다투어 나왔느니라. 그때, 장자 아들들이 편안히 나와 네거리 길 위의 맨땅에 앉아 다시 아무 일 없음을 보고, 마음이 놓여 한없이 기뻐하였다.

아들들은 각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까 준다고 한 노리개, 양거, 녹거, 우거를 이제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대목은 〈비유품〉에 있는 '불난 집(火宅喩)' 이야기다. 불난 집에 놀고 있는 아들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아버지가 쓰는 방편 이야기다. 중생의 번뇌와 욕망을 흔히 불꽃에 비유해 말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삼계(三界)가 모두 불난 집이라 하였다. 이는 중생의 세계가 안전지대가 아닌 위험한 곳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느 것도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몸도 그렇고 목숨도 그렇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불안과 고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부처님이 방편을 쓰시는데 세 개의 수레를 주겠다고 말해 불난 집을 나오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삼승법(三乘法)인 성문, 연각, 보살승이다. 이를 권교(權敎)의 법문이라 하고 법화법문을 실교(實敎), 일승법(一乘法)이라 한다. 이 일승법을 백우거(白牛車)라 하는데 흰 소가 끄는 수레다. 불승(佛乘)을 상징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곧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탐욕 제어 '관용' 실천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⑦ 불투도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두 번째인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즉 훔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훔친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타인의 일에 대해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시간 낭비 또는 책임 회피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훔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칠 수도 있고, 마력이나 주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기만하여 가로채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중량이나 치수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도둑맞은 것에 대해 적절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보시를 받기도 한다.

훔치는 행위에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투도계를 어긴 것이 된다. 첫째는 취해진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취하려는 것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의 인식이다. 셋째는 훔치려고 하는 '의도'이다. 넷째는 훔치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의 사용이다. 다섯째는 실질적인 물건의 획득이다.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간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업보(業報)가 따른다.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과 이 죄로 인한 업과(業果)의 정도는 취해진 물건의 가치와 원래 주인의 미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훔친 물건이 귀한 것일수록 죄는 무거워지며, 미덕을 갖춘 이로부터 훔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로부터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 도둑질로 인한 업보는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설령 다른 선업(善業)으로 인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라도 가난할 것이며,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富)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도둑질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번뇌[三毒] 가운데 하나인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다. 또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욱 크다. 이처럼 탐욕은 제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탐욕을 무엇보다 강하게 경계한다.

탐욕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너그러움이라는 특성을 계발하여 탐욕을 가라앉힘으로써 훔치게 되는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생멸변화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몸소 체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잡으려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주저앉을지라도 말이다.

너그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용'이라는 선한 성품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풀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탐욕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관용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용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에서 근원한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투도계의 실천은 궁극적으로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⑦ 고대 인도시대의 전염병

수호신으로 변모한 악귀들

당연히 석가모니 시대에도 질병은 존재했을 것이고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도 창궐했을지 모른다. 당시의 질병이나 치료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다. 다만 그 질병의 흔적을 경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신화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베다에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귀들을 '그리하(Graha)'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본래 어디에 '사로잡히다'는 뜻이다. 귀신들린다는 뜻으로도 쓰이며, 그렇게 만드는 신도 그렇게 부른다. 한마디로 악귀다. 초기 인도의 몇몇 악귀들은 특별히 여신들이 더 그러한 경우가 많으며, 질병을 의인화한 존재들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들은 극복해야할 존재였으며 조복 후에는 불교에 수용되어 수호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변모한 악귀들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는데 자신들이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던 특성들, 즉 질병적 특성들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빠른 질병의 전파력과 감염성(graha)은 무엇인가를 빨리 추격해 포착하는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능력은 불교에서 수용된 질병의 악귀를 신속한 체포와 구금의 신으로 탈바꿈시킨다.

인도를 포함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된 불교의 대표적인 전염병의 신은 여신 하리띠(Hārītī)인데 이는 천연두의 여신이다. 이 여신의 유행은 기원전후 스왓트(Swat) 지역의 조각에서 확인되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인도에서 유행했던 질병의 흔적을 보여준다. 3세기경 한역된 〈귀자모경(鬼子母經)〉, 유부비나야잡사(有部毗奈耶雜事에) 등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악신은 본래 아이를 납치하여 잡아먹던 야차녀였다. 하리띠는 붓다의 교화에 의해 죽음의 여신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갓 태어난 신생아와 그 산모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낙태되거나 유산된 아이의 혼령을 보호하는 여신으로, 또는 그의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신으로 변모한다. 후대에 이 여신은 천연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 뱀에게 물린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전 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잔타 석굴에 호법신장으로 많이 조성된 하리띠 신상은 당시 불교승려들이 대중들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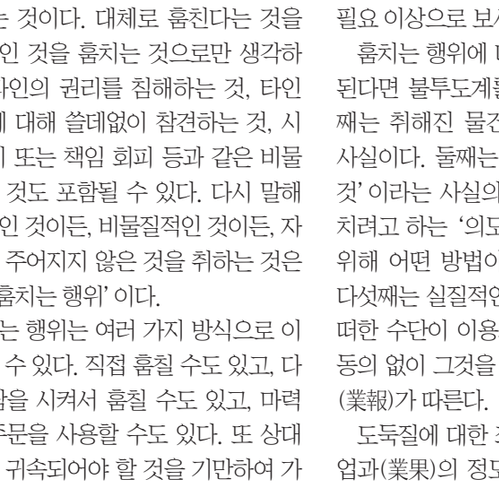
또 다른 고대 인도의 질병의 신으로 스깐다(Skanda)가 있다. 이 신은 본래 고대 힌두교의 전투신이었으나 불교에 흡수되어 대표적인 호법신장으로 발전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위태천(韋陀天)이라고 부른다. 하리띠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된 불교의 신이다. 그렇지만 이 신격이 고대 인도의 질병의 신이라는 점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신이 처음 등장한 후 고대 인도사회의 전통적인 신위체계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신이 갖는 질병적 위험성을 탈락시킨 후에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힌두 문헌에서 스깐다의 흔적을 살펴보면, 이 신격이 질병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집단과 함께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리그베다에서 질병을 뜻하는 그라하(Graha)가 스깐다와 함께 자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스깐다 신이 고대 인도사회에서 질병을 암시했다는 단서는 인도의 초기 의학서인 짜라까상히따(Carakasaṃhitā)와 수슈르따상히(Suśrutasaṃhitā)에서 특히 소아성 질병을 이야기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특정 어떤 병이라기보다 병의 외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징후를 표현할 때 더 많이 쓰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이 불교에 흡수된 이후에 감추어졌던 과거의 흔적 즉 질병으로서 면모가 다시 드러난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스깐다가 전투의 신일 뿐 아니라 도적(盜賊)의 신으로도 묘사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빠르게 침투하여 상대를 점령하는' 특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경에서는 탈취된 불사리를 되찾아오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스깐다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과거 질병이 갖는 특성들을 의인화하여 그 기능을 순전히 호법과 풍요의 기능으로 역전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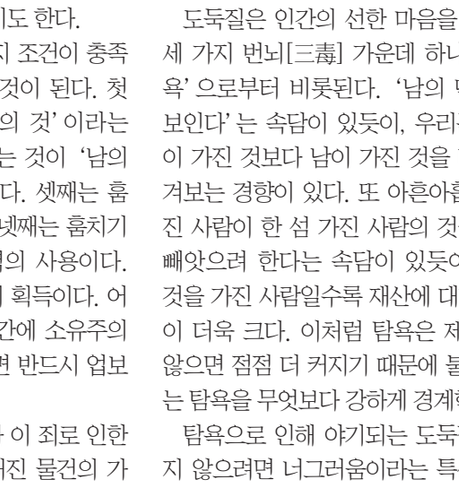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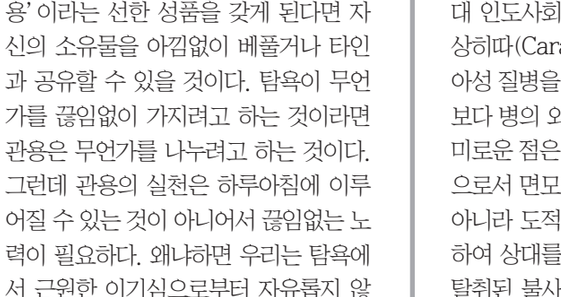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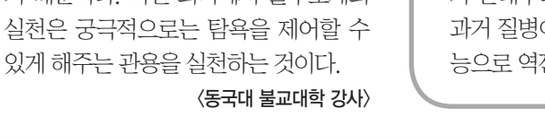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신 화 불 사

매 물 안 내

법 당 이익공 27평 ····· 3,000만원

요사채 초익공 ㄱ자집 33평 ····· 3,000만원

대중간 초익공 45평 ····· 4,500만원

사주문 7포 약 10평 ····· 2,000만원

위 사찰 제목은 다른 장소로 옮겨 지으려
정성을 다해 철거했으나
부득이 철거 비용도 안되게 처분하오니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